



<환대, 교회인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

성경에 나타난 내용 중에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환대'(hospitality)라는 개념입니다. 통상 "대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지만, 조금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의미는 '대접'의 개념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환대'라는 개념을 통상적으로 '외부인을 위한 대접'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님' 또는 '나그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필로크세니아'(filozenia)라는 단어인데, 사실 원어적 의미로서 번역한다면 '환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대'를 생각할 때, 그저 노숙자에게 잘 해 주거나, 길에서 만난 걸인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고 말씀하신 내용의 결과가 우리는 잘 알기에 이러한 선행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크세니아'(filozenia)로 번역된 '환대'는 '외부인'에 대한 따뜻한 대접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낯선 자"(stranger)에 대한 따뜻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필로크세니아'(filozenia)는 'filos'와 'xenos'의 합성어입니다. 앞쪽의 필로스 사랑이란 뜻이구요. 뒤쪽 크세노스는 '외국인 혐오'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xenophobia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어의 합성어인 '필로크세니아'(filozenia)는 "낯선 자들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낯선 사람일까요? 물론 손님과 나그네 같은 분들도 낯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넓혀본다면 나에게 낯선 사람은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낯선 사람은 외부인이나 나그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낯선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Monk habits for everyday people>이란 책에 보면, "환대, 손님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에 따르면,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로 환영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21세기 북미에서 일어났다면 1세기 예수님이 회당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셨던 것처럼, 대형교회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시고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세리나 술꾼들과 잘 어울린다는 소문이 자자한 어떤 노숙자나 우애의 손길은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의 증거물을 제시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대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브릿지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 한 명 한명을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리스도로 환영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브릿지 교회는 작은 소그룹을 통해 서로를 환대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 환대의 훈련은 얼마나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소그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환대'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www.chicagobridgechurch.org

차세대 사역자: Grace Lee(유치부), Ahyuwani(Youth), Janice Kim(유/초등부)
담임목사: 임무영

"Game Changer"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 5

"남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출전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2023 표어: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담임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여는 찬양.....	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	(1부) 이은신 전도사 (2부) 이사무엘 집사
헌금찬양.....	다같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 503장)	
헌금기도.....	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	다같이
교회소식.....	임무영 목사
성경봉독.....	임무영 목사
마태복음 5장 7절 (Matthew 5:7)	
설교.....	임무영 목사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 5>

"타인을 돌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take care of others.)

설교 후 찬양.....	다같이
"공감하시네" (God, He shares our pain)	
*축 도.....	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stand up if available)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본 당	
주일예배 2부	12:00 pm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 등 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

1. 환영: 시카고 브릿지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함께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공지사항
 - a. 2023년도 5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b. 2023년도 6월달 생명의 삶 Pick up (문의: 전성민)
 - c.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매달 3, 4주일)
 - d.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이용: www.chicagobridgechurch.org
 - e. 브릿지 교회 인스타그램(instagram) 오픈: ID (chicagobridgechurch)
 - f.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a. 토요 새벽예배: 5/27(토) 6am "사사기 강해 18" / 현장 & Zoom
 - b. 1부예배: 10:30am (소예배실)
4. 2023년 The Bridge Life Church Retreat 안내
 - a. 기간: 5/27(토) ~29(월)
 - b. 장소: Green Lake Conference Center, WI(W 2511 State Rd, Green Lake, WI 54941)
5. 다음 주일(5/28)예배는 전교인 Family Retreat관계로 9:30am에 드립니다. 예배는 수련회 장소와 Youtube Live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수양회 장소 도착시간: 2-3pm / 버스타승 시간: 10:30am (교회 주차장) / 출발: 11am
6. 브릿지 Family Retreat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 a. 기간: 5/22(월)-26(토), 6am
 - b. 장소: 교회및 삶의 현장 (매일 아침 6시,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7. 6월 운영위원회 모임
 - a. 일시: 5/23(화) 6pm / 장소: 박지웅 집사 가정
8. 브릿지 소그룹 모임주일
 - a. 일시: 5/21(주일), 친교시 / 장소: Fellowship Hall (식사는 소그룹 테이블별로 진행합니다.)
9. 2023 졸업예배를 위한 리허설
 - a. 일시: 5/21(주일) 2pm / 장소: 본당 / 대상: 졸업대상자및 해당 부모님, 축복기도 담당자
10. 브릿지 교회 졸업예배
 - a. 일시: 6/4(주일) 2부예배시 / 장소: 브릿지 교회 본당 / 주관: 차세대 팀
11. 예배 및 봉사위원
 - a. 이번 주일 친교: 이재태 / 다음 주: 정여상, 강은지
 - b. 다음 주 기도: 1부: P.Ahywani / 2부: 김영철
 - c. 5월 안내및 헌금위원: 이혜린, 송재우(헌금) / 조희선, 표춘자(안내)
12. 함께 기도해 주세요
 - a.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사명을 잊지 않도록
 -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임성란, 이숙경)
 -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사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소그룹 리더자들을 위해
13. 지난 주 출석: 어른(79), 다음세대(33) / 합계: 112명